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4. 07. 08 (월) 18:25
 회의 장소 기초학문관 51205
 회 차 56 - 15
 서 기 인사운영국원 김수환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자연과학대학 ○
정보통신대학 결석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공과대학 ○
건축학과 ○	약학대학 결석	생명공학대학 ○
스포츠과학대학 ○	의과대학 결석	성균융합원 ○
동아리연합회 무단결석		

전체 단위 수: 13 (정족수: 9) / 출석 단위 수: 9



1. 단위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 가. 원모아 제휴 의료복지 지원 안내
- 나. 영단기 제휴 혜택 안내
- 다. 2024-1 성적공시 지연 사례 설문조사 실시
- 라. 방학 중 총학생회실 오피스아워 운영 안내

2) 자연과학대학

- 가. (06.28~07.09)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및 면접 진행

3) 정보통신대학

- 가. 제3회 메이킹 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 완료

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가. 숲무위키 정식 배포 완료
- 나. 성성특 홍보 완료
- 다. YBM 홍보 완료

5) 공과대학

- 가. (07.19) 공과대학 학생회실 리모델링 업체 선정완료 및 공사 진행 예정
- 나. 전공박람회 기획 중

6) 건축학과

없음.

7) 약학대학

없음.

8) 생명공학대학

없음.

9) 스포츠과학대학

없음.

10) 의과대학

없음.

11) 성균융합원

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연합체육대회 준비단 카톡방 개설 완료

12) 동아리연합회

가. (07.03) 라이브치과 여름 홍보물 업로드 완료

나. (07.04) 제7차 동아리 운영위원회 진행

가) 펜싱 동아리 조선제일검 준중양동아리 등록

나) 로얄스 SKKUO 자치공간 변경

다. (07.07) 신입 집행위원회 서류 합격자 발표

라. (07.08) 신입 집행위원회 면접 진행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총학생회

가. 연석회개소위 구성 의결

-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인원수를 맞추느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한 분이 제외되었음. 올려드린 명단 대로 회의가 끝난 후 공고를 올릴 예정임.

<연석회개소위 구성원을 해당 명단으로 진행한다.>에 찬성한다.

→ 가결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나. 전학대회 대의원 관련 조항 논의

- **총학생회장:** 회개소위 구성 의결하기 전에 대의원 관련해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이에 대하여 각 단위 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 회개소위 구성을 의결함.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는 사람 중 대의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학과의 전공 반장이나 학년 대표가 존재함. 총학생회장단이 생각하기에 학년 대표와 반장이 실제로 반장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년 대표들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인원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되어 회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함. 근본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임. 그러나 학년 대표들의 신중한 고려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 이 조항을 제거하여 비례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음. 비례대표의 명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각 단과대별로 100명당 비례대표를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이 있음. 비례대표는 선출직이므로 책임감이 향상될 수 있음. 또한, 실제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자연과학대학과 생명공학대학은 학년 대표로 채워져 있지만 공과대학은 학년 대표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대학은 과에 따라 반장, 학년 대표로 자리하고 있음. 의결권 수가 바뀌는 것이므로 각 단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성균융합원:** 비례대표는 각 대학에서 따로 선출하는 것인지 질의.
- **총학생회장:** 회개소위에서 더 깊이 다룰 예정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생각 중임. 선출 방식까지 회칙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총학생회칙이 각 단위별 특성을 고려해서 명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성균융합원:** 4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면 인원을 모두 다 채워야 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책임감을 가지고 대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분들이 계시면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각 단위별로 판단하였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만큼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자유롭게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자연과학대학:** 매년 학과마다 학년 대표를 2명씩 대의원으로 선정하였는데, 비례대표로 바뀌게 된다면 인원수에 변동이 있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회개소위에서 숫자는 조정하기 나름일 것 같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회칙에서 100명 당 1명으로 되어있어 예시로 참고하였음. 비례대표를 해당 방안으로 하는 것에 긍정적인지 질의.
- **건축학과:**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회장단을 제외하고 다른 인원을 대의원으로 참석시키지 않았음. 학년 대표나 대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질의.
- **자연과학대학:** 학과 학우분께 전달 드릴 때 학과 내부에서 학년 대표를 선출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에 학년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해야 함을 전달함. 학년 대표가 학과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자세히 모름.
- **총학생회장:** 자연과학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업무는 없음. 생명공학대학은 특정한 역할이 있는지 질의.
- **생명공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만 참석하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성균융합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에 학년들의 의견을 묻거나 무엇을 의결하는 기구인지를 숙지하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
- **생명공학대학:** 사전에 말씀을 드린 후에 학과 내에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과 학생회 자체적으로 투표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단과대학에 명단을 줌.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회의의 목적 등을 숙지시키고 옴.
- **총학생회장:** 비례대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질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회개소위 때 반영할 예정임. 특히 학과가 있어 단위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단위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람.
- **공과대학:** 공과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참석하시는 인원이 대략 14명 정도인데, 과마다 학년 대표가 없어 인원이 별로 오지 않음.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100명당 1명일 시 30명 정도가 추가로 더 참석해야 함. 이러한 인원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위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비례대표가 없어도 과 학생회 내의 인원이 참석하므로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한지 의문임.

- **총학생회장:** 사실 학년 대표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조항 삭제도 말씀드



렸음.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학우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여 학년 대표를 지우고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공과대학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숫자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음.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라고 설정하면, 기계공학부의 회장단을 포함하여 5~6명 정도 참석하는 것인데, 사전에 논의된 것이므로 판단은 동일하게 진행할 것임.
- **총학생회장:** 직접 참여하며 의결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였음. 그러나 30명은 많은 숫자로 보임. 원래 비례대표가 있었는데, 22년도에 캠퍼스별 총학생회칙이 통합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캠퍼스만 비례대표가 존재하여 반장과 학년 대표로 변경된 것임. 그전의 기준은 400~500명 중 1명으로 기억함. 100명당 1명은 과한 숫자로 보임.
- **공과대학:** 1~2학년 대표, 3~4학년 대표 대신 비례대표가 도입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는 학과에 속한 대의원에 참석하고 싶은 인원을 선출하는 것인지 질의.
- **총학생회장:** 선출 방식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개소위를 진행하며 의견을 모으고자 함. 각 단위 안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할 예정임.
- **성균융합원:** 비례대표 역할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외에 따로 있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없음.
- **성균융합원:** 비례대표 소속이 아닌 단과대 학생회 소속으로 포함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단과대 혹은 학과 소속의 비례대표일 것으로 예상함.
- **성균융합원:** 학년 대표가 공식인 곳도 많고 학과 학생회장단이 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음.
- **총학생회장:**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의결권이 줄어들 수 있음.
-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회의 때 학년 대표가 참석하였으므로 괜찮다고 답변함.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비례대표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음. 만약 비례대표제가 되면 회장단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가 확보되는지 우려됨.
- **총학생회장:** 비례대표는 회장단은 별개로 비를 더 이용함.
- **건축학과:** 저번 회의 때 대위원을 선출하지 않아 비례대표제로 변경해도 괜찮음.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에서 그칠 것 같음. 만약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선출 과정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총학생회장:** 선출 과정에 의의를 들지 고려 중임. 현재는 단과대 회칙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선출 과정에 있어 총학생회칙에서 명시할지 고민 중임.
- **건축학과:** 비례대표를 시행하면, 인원 수별로 배정한다면 100명 이하인 학과는 한자리를 주는 것인지 질의.
- **총학생회장:** 절삭 방식임. 이러한 이유로 단과대학과 학과 중 단위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단과대학으로 단위를 지정하면 큰 규모의 선출 과정을 단과대학이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스포츠과학대학:** 단과대학으로 단위를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절삭 방식으로 진행되면 학과 단위의 경우 너무 많은 비례대표들이 사라짐. 혹은 단과대학 선거 시 비례대표도 같이 선거를 진행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과정도 제안함.
- **총학생회장:** 단과대별 선거를 개입하는 것이 우려됨. 해당 의견도 고려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겠음.
- **건축학과:** 오늘 비례대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인지, 해당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회개소위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질의.
- **총학생회장:** 의견을 모으는 자리임. 오늘 의견 수합 후 개정안은 회개소위에서 논의하고자 함. 연석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임. 스포츠과학대학은 재학생 수가 몇 명인지 질의.
- **스포츠과학대학:** 300명 정도임.



3.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없음.



총학생회장	정영기
부총학생회장	이현진
자연과학대학	나재원
정보통신대학	송승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형준
공과대학	나원현
건축학과	최원재
약학대학	이홍규
생명공학대학	손민우
스포츠과학대학	김재경
의과대학	신현승
성균융합원	여현규
동아리연합회	윤준호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